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8호 [루계 제24916호] 주제 104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백두의 칼바람으로 침체를 불사르고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창조와 혁명의 눈부신 현실이 펼쳐졌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은 문학예술부문에서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확고히 서고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있으며 대중의 심금을 꽁꽁 울릴수 있는 맹작들이 그 어느보다 더 많이 쏟아져나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을 비롯한 당에 충직한 혁명문학예술인들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서 한해동안 높은 창작에 출신으로 들끓는 시대의 기수, 혁명의 나팔수로서의 서명을 다하였다.

그러나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과 혁명,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좋은 맹작들이 꽁꽁 쌓이거나지 못하고 있다.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천만군민이 노도처럼 절풍처 내달리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문학예술부문이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정신으로 다시 한번 분발하여 새 세기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하루빨리 힘차게, 드높이 울려야 할 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을 주거세워 문학예술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지도속에 진행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는 주체문화예술발전의 정신으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우리 문학예술발전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 원수님의 의지였다.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새 세기 문학예술혁명의 청탁한 체현자가 되어야 투철한 판철자가 될수록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인 서한에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학예술과 리론, 새 세기 문학예술발전의 고귀한 지침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우리 문학예술을 하루빨리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우시려는 드림없는 의지가 어려웠다.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서한의 구절구절을 깊이 학습하여 그 기본성신과 내용을 봐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빙번히 외우고 문답식 학습경연을 한두번 했다고 하여 서한의 정신으로 무장했다고 말할수 없다.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로부터 예술단체의 마지막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언제나 학습하고자 노력하고자 기꺼이 서자지구 새겨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단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구체적으로 밟혀주시였다. 영화부문, 문학

나가야 하는가를 심각히 깨우쳐 주고 있다. 모란봉악단처럼 당이 준 파업을 당에서 정해둔 시간에, 높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시판철하자. 이런 각오를 지니고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들끓는 현실은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질풍같이 전진하는 총진군대오의 맨 앞장에서 우리 문학예술인들이 진직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며 힘차게 대내일을 풀고 있다.

문화예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오늘의 시대의 요구에 맞아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가 명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부문, 무대예술부문 등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단위에서는 서한의 사상에 비추어 지난 1년간 창조사업정력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사적인 서한에는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오늘의 시대의 요구에 맞아 어떻

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가 명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부문, 무대예술부문 등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단위에서는 서한의 사상에 비추어 지난 1년간 창조사업정력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사적인 서한에는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오늘의 시대의 요구에 맞아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가 명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부문, 무대예술부문 등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단위에서는 서한의 사상에 비추어 지난 1년간 창조사업정력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철주야의

로고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이끌어나

가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 청년들에게 훌륭한 명작을 안겨

주시기 위하여 누구보다 마음쓰고 싶다.

문화예술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개설하여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세계』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흠모와 격정이 절절한 글이

작품, 『내 마음』, 『천리라도 만리라도』,

『행복의 레일』과 같이 시대와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불을 질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이다.

문화예술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개설하여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세계』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흠모와 격정이 절절한 글이

작품, 『내 마음』, 『천리라도 만리라도』,

『행복의 레일』과 같이 시대와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불을 질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이다.

문화예술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개설하여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세계』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흠모와 격정이 절절한 글이

작품, 『내 마음』, 『천리라도 만리라도』,

『행복의 레일』과 같이 시대와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불을 질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이다.

문화예술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개설하여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세계』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흠모와 격정이 절절한 글이

작품, 『내 마음』, 『천리라도 만리라도』,

『행복의 레일』과 같이 시대와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불을 질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이다.

문화예술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개설하여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세계』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흠모와 격정이 절절한 글이

작품, 『내 마음』, 『천리라도 만리라도』,

『행복의 레일』과 같이 시대와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불을 질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이다.

문화예술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개설하여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세계』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흠모와 격정이 절절한 글이

작품, 『내 마음』, 『천리라도 만리라도』,

『행복의 레일』과 같이 시대와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불을 질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이다.

문화예술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개설하여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세계』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터치는 흠모와 격정이 절절한 글이

작품, 『내 마음』, 『천리라도 만리라도』,

『행복의 레일』과 같이 시대와 인민의

양양된 기세에 불을 질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바라는 명작이다.

서 창작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악하게 실천하여 하며 명작창작으로 원수님의

사상과 평도를 받들어나간다는 결의를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사적인 서한에는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오늘의 시대의 요구에 맞아 어떻

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가 명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관점에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문학예술부문의 침체는 사상적침체

이며 예술창작조사에서 주제로는 그

인민군과 당원들이 오늘의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

인들은 사상과 정신으로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